

케이(K)-특허고객번호 관리시스템, 세계로 확산된다!

- 김완기 특허청장, 4월 28일(월) 다렌 탕 WIPO 사무총장과 회담 개최 -
- 글로벌 특허고객번호 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 28.(월) 14시 30분(현지시간),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 본부(제네바 소재)에서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글로벌 특허고객번호(Global Identification(ID))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중 유일하게 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인의 이름, 주소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특허고객번호를 도입하여 모든 출원인들의 출원 및 등록 관련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WIPO가 다양한 국가·지역에 적용 가능한 글로벌 특허고객번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험과 비법이 WIPO를 통해 널리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WIPO가 글로벌 특허고객번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국제특허출원(PCT) 등 WIPO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자회의에서는 우리기업의 PCT^{특허}·마드리드^{상표}·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동향,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특허심사 업무 지원 서비스 개선,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한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공동사업 및 한국인의 WIPO 고위급 진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다렌 탕 사무총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융 및 사업화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비법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한-WIPO 공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면서,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 협력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사업화 등 WIPO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 회담 및 양해각서 관련 사진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보국	책임자	과 장	최일승 (042-481-5460)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주미 (042-481-5116)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	과 장	이승관 (042-481-5063)
	국제협력과	담당자	서기관	강희만 (042-481-8766)



사진 1: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이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오른쪽)과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2: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 회담 전경 사진